

사설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주제 107 (2018)년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은 지금 무한한 환희와 격동으로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할데 대한 문제,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데 대한 문제 등 북남관계대전환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에는 세계적인 핵강국지위에 오른 우리 민족의 위상에 맞게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군사적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막으며 민족공동의 안녕과 조선반도평화

를 수호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평화애호리념과 뜨거운 민족애가 맥동치고있다. 또한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올해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시려는 절세위인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대응단도어려웠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당국은 물론 남녘의 각계층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접하고 《북찬 제안》, 《신년사의 내용과 표현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환영해나가고있으며 남조선언론들도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제의》 등으로 대서특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천명하신 강령적 가르치심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우리 겨레를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다.

지난해 공화국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의 자위적핵억력강화를 막아보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류례없이 악화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였다.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인민들의 대중적항쟁에 의하여 파쇼통치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관계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남조선당국

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앞에 땃땃한 모습으로 나설수 없다.

새해는 공화국이 자기의 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다. 북과 남은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수도 없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 격화를 부추길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걸어치워야 할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공화국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다.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근본전제이다.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이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신년

사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보수 《정권》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장치를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를것이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남사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

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립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견지에서 공화국은 대표단과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환피줄을 나누는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통일애국의 승결로 높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의지가 뜨겁게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지금 전체 조선민족에게 조국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무한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할것이다.

《김정은령도자 북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배비를 강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1일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보도하였다.

쿠바의 브레짜 라피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조선의 당과 국가와 인민이 국가 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올해 조선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

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이라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의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건설사업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평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해는 조선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밝히시였다.

또한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체인민이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이란의 프레스TV방송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신년사에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나

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국은 결코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밝히시였다.

또한 조선은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이라고 하시면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신년사를 통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의 핵무력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올해에 핵탄두들과 탄도미사일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 리아노보스찌통신, 인터넷잡

지 《렘취취》, 인터넷홈페이지들인 《빠트리오프 모스크바》,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보도망, 환구망, 인민망, 국제방송망, 몽골의 몬짜메통신, 싱가포르 신문들인 《스트레이크 타임스》, 《련합조보》, TV《아시아소식통로》, 홍콩 《명보》, 이란의 일나통신, 라스님통신, 인디아의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인디안 익스프레스》, 《스레이크맨》, 《힌두》와 잡지 《비즈니스 스탠다드》, ANI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NDTV방송, 지 뉴스TV 방송, 도이칠란드의 데페아통신, 미국의 UPI통신, 일본의 NHK방송,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쿄신보》, 《니혼게이자이신보》, 《아사히신보》도 《김정은령도자 신년사에서 핵단추가 자기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고 언명》, 《김정은위원장 미본토를 공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배비를 선언》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신년사에 어린 송고한 통일애국의 세계

새해의 첫 아침 겨레 모두의 가슴을 울려준 신년사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송고한 민족애와 투철한 민족자주사상, 확고한 통일외지가 자자구구마다에 흘러넘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년사에는 세계적인 핵강국지위에 오른 우리 민족의 위상에 맞게 북과 남이 과거에 없애이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 나가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이미 6년전 4월 위대한 주석님탄생 100돐 경축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오랜 세월 한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

민족의 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낼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안으시고 력사 의 평 판문 점에 도 송고한 영웅의 자욱을 새기신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겨레의 통일념원을 꽃피우실 신념과 의지가 차 넘치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비극을 강요한 외세는 결코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며 온 겨레의 단합된 투쟁에 의해서만 앞당겨올 수 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 가슴깊이 새겨안으신 원수님이시기에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자주의 가치를 시종일관 내세우고 계신다.

신년사의 구절마다에는 또한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군사적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막으며 민족공동의 안녕과 조선훈도평화를 수호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평화애호리념과 뜨

거운 민족애가 맥동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평화를 갈망하고있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것을 원치 않고있다.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외세가 이 땅의 인민들을, 우리 겨레의 운명을 통략하고 위협하려는 것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신다. 지난해에 악의 제국인 미국에서 《완전파괴》, 《절멸》이니 하는 녀두리가 울려나왔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시면서 미국의 늑대리미치팡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 발족동에 광분해도 이제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다고 언명하시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가지면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과 남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침에게 대치되어있는 상태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 땅에 화염을 퍼붓고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이려는 외세와의 핵전

쟁연습에 계속 가담한다면 군사적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나중에는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전쟁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하여 북남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그이의 애국의 호소는 그래서 더욱 절절하고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신년사에는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율해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대용단도 어리여있다.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율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만한 해로 빛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 발족동에 광분해도 이제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다고 언명하시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가지면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과 남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침에게 대치되어있는 상태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 땅에 화염을 퍼붓고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이려는 외세와의 핵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민족애가 어리여있고 오랜 기간 응어리진 겨레의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봄눈처럼 녹여주시는 위인의 따뜻한 말씀이다.

사랑과정이 넘쳐나는 그이의 신년사가 울려 퍼진 새해의 첫 아침부터 조 선반도에서는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그이의 신년사에 접한 남조선당국은 《북남간의 새로운 국면시작을 알리는 긍정적 신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 《벽찬 제안》이라고 하면서 적극 환영하였고 한 인사는 《북남, 해외, 제정사법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 단체, 개별적인사들의 협력과 교류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이 북남관계개선에 앞장설것을 다짐하였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인터넷에 《새해 좋은 소식으로 열게 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녕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고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며 2018년은 북남관계와 통일력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수놓아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는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김정은위원장, 매우 자신감있는 목소리로 신년사 진행》, 《밝은 회색양복, 빨레안경으로 자신감 한껏 퍼력》,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대미핵억제력 과시》, 《형식과 내용에서 확연히 달라진 2018년 신년사》 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런 합 뉴스》와 《동아일보》, 《노컷뉴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2018년 신년사는 옷차림과 음성, 자세 등에서 강한 자신심에 넘쳐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신년사때에는 검은색양복차림이였지만 올해에는 한결 여유가 엿보이는 밝은 회색갈의 양복과 넥타이차림이였다.》, 《관록있는 지도자의 느낌을 주었다.》, 《보무도 당당했고 정면을 응시하며 자신감있는 목소리로 신년사를 하였다.》고 하였다. 《북의 지도자가 엄동설한에 밝

강한 자신감이 넘치는 신년사

은 양복을 입고 나온것은 처음이다.》, 《부드럽고 원만한 지도력을 과시하였다.》, 《매우 자신감이 넘치고 핵, 미사일 기술도 완성되었다는 것이 읽힌다.》고 하였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과 동국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위원장이 핵무력완성을 바탕으로 그 어느때보다 대미핵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핵무력완성에 따른 전략국가로서의 부상을 토대로 한 강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국가핵무력완성을 토대로 남북관계개선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고 하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일 배포한 《2018년 김정은위원장신년사 특징 분석》에서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겨울철 올림픽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에 대한 환희와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희망찬 새해의 첫기슭을 떠난 사람들중에서 발걸음소리 제일 높은것은 청년들이다. 올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게도를 펼쳐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청춘의 열정과 기백이 넘치는 청년들이 공장, 발전소, 건설장들 그리고 과학, 교육, 보건,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앞장에 서있다.

청년들의 미더운 모습이자 약동하는 공화국의 현실이다. 나라의 밝은 미래가 청년들의 얼굴에 비껴있다.

사회발전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좌우되는 법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청년문제를 바로 해결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천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이 방황하고 마

약, 알콜중독자, 자살자가 끊임없이 늘고있는것이 오늘의 세계현실이다. 극도로 부패타락하고 이지러진 청년들이 살인과 략탈,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사회는 그들을 우환거리로 치부하면서 외면하고 박대하고있다. 세계의 열점지역, 분쟁 지역들에서 테로범이 되고 류혈참극의 희생물로 되고 있는것도 청년들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청년들의 모습은 이와는 판관 다르다.

령도자의 애국의 뜻과 구상을 일심으로 받들고 따르는 고결한 충정의 열도와 국가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로 충만된 열정과 고상한 미덕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탁월한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청년들은 세대를

이으며 민족자주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인공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있다.

조선청년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복구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으며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 데서도 혁혁한 위훈을 세웠다.

사회주의운명을 판가름하는 반제반미대결전의 준엄한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조국을 결사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의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한것도 청년들이다.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가시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며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뜻깊은 말씀에 그이의 청년중시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청년이라면 하나를 연구해도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단의것을 내놓고 한가지 일을 해도 하늘을 나는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해제끼는 웅대한 포부와 진취성이 있어야 한다

는 그이의 말씀에 청년들에 대한 두려운 믿음과 크나큰 기대가 깃들어있는것이다.

령도자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나라의 기둥으로, 미래의 역군으로 떠받들리우는 청년들의 애국열은 불처럼 뜨겁다. 조국이 부르는 곳에는 어데가나 청년들이 있고 그들이 세운 위훈은 별처럼 빛나고있다.

우주를 정복하는 경이적인 발전과 최첨단돌파의 기적적인 성과들,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체육, 예술을 비롯한 문명강국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눈부신 변혁들은 리상과 포부가 원대하고 창조적임이 무궁무진한 조선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대가를 떠메고나가는 미덕의 소유자들이다. 부양자가 없는 젊은이들의 친자식이 되고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모임은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취녀어머니》가 되는 청춘들의 고상한 미덕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전 세대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을 누리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이려는것은 조선청년들의 삶의 목표로, 지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청년 강국의 현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새해전 1월 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식당에 들리시어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물고기와 고기, 납새, 과일을 비롯

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떨구지 않고 보장해주는 체계를 그쁘하게 세워주었는데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관리를 위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리시어 원아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

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 애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 고 하시었다.

주제 102(2013)년 12월 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었다. 식당, 상점, 간이매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봉사활동정형과 봉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시운전중에 있는 삭도에 오르신다.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시운전중에 있는 삭도를 타보시며

일군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할 모든 주로들을 다 보겠다고 하시며 안전성이 채 확인되지도 않은 삭도를 타고 대화봉정점으로 향하시었다.

설비의 안전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삭도를 타보시고 삭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되었고 주로들의 상태도 나쁘지 않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새로운 승리를 향한 힘찬 진군길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남다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새해의 첫 진군길에 펼쳐나선 공화국 인민들의 기세와 열의는 뜨겁다. 지난해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올해에도 더 큰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나갈려는 마음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올해의 휘황한 투쟁목표와 방략들을 환히 밝혀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반에서 활성화의 돌과귀를 열어제끼기 위한 과업과 방도, 자위적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어 나라의 군력을 역척같이 다지며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다.

공화국이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지난 몇해어간에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거창한 창조와 눈부신 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것은 출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도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천리헤안의 심오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혁신적인 창조정신과 령활하고 로숙한 전개력은 그이의 특출한 자질이고 령도실력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자기 발전의 길을 옳바로 걸어나간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이 없다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던 자랑스러운 령사도 순간에 옛일로 묻히고만다.

위대한 계승은 위대한 창조를 요구한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한 비통한 마음을 안고 이 땅의 남녀노소모두가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께서는 이미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며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완공하여야 할 대상건설에 힘을 넣을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 년대별로 실현

해나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민이 영원히 지녀야 할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담겨져있었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직선주조가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통도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공화국의 전쟁역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그것은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불과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이 핵무력완성의 령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존엄과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더 힘있게 매진할수 있게 된 오늘의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엄숙히 언명하시었다.

이것은 공화국이 평화수호의 보검을 자기손에 틀어쥐었으며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역력을 의거하여 부강조국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며 비약과 변혁의 원동력이다.

인민들이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할 래일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국가경제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은 나날이 현실로 이루어지고있다.

주체 102(2013)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에게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령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호소문에서 전체 군인건설자들이 단숨에의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령사적인 호소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불길을 지퍼올렸으며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게 하였다.

이렇게 창조된 마식령속도는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위대한

김정은시대, 새로운 청춘시대를 열어놓았다.

노래는 시대의 메아리이며 사람들의 생활감정의 반영이다. 사람들 누구나 즐겨 애창하는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구절도 있는것처럼 오늘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적대세력의 악랄한 제재와 흑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었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였다. 평양가방공장, 류경김치공장, 금산포젓갈가공

공장, 삼천메기공장, 평양버섯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등 수많은 현대화된 공장들에서는 인민들의 인기를 끄는 질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나왔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트랙토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육종해내어 식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지난 기간 이룩된 모든 기적과 위훈은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인에 맞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현명하게 이끄신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선견지명과 로숙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이가 계시어 올해 2018년도 세계가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래일을 확신하며 이 땅의 천만군민은 새해의 첫 발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그 이름 세계에 떨친 위대한 인민이 올해에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돐을 어떻게 성대히 기념하는가를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난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 조선의 일심단결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었다.

돌아보면 공화국은 지난해 령사에 류례없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미국집권자는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와 자위적행사를 트집잡아 공화국의 《완전과피》와 《절멸》을 고아대면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였으며 추종세력들을 부추겨 극악한 반공화국제재책동에 열을 올리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자위적핵억제력을 포기하

게 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제동을 걸어 어떻게 하나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을 떨어뜨리려 하였으며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였다. 저들이 자인한바와 같이 보기 드문 위협이었고 참혹한 제재였던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상상을 부정해버렸다. 최악의 난관속에서도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의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화국은 각종 핵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총적지향과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

하였으며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역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고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형의 트랙토르와 화물자동차를 생산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조건

에서도 알곡생산량을 늘이고 레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왔으며 웅장화려한 령명거리와 대규모의 세도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 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였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바로 여기에 조선인민의 존엄이 있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지난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시하신 탁월한 병진로선의 승리이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병진로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 준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송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구절에서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은 절세위인의 무한대한 인민사랑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고 있다.

물고생이 많은 최전연섬방어대 군인들을 생각하시어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만신의 배고동소리 울리는 포구를 찾고 또 찾으시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바다항기를 안겨주신분, 완공을 앞둔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에 이제 여기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이런 멋이 혁명을 한다고 하시는데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두해전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사나운 자연재해가 휩쓸었던 지역들을 사회주의조경으로 전변시키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강력한 핵억제력, 이것이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필승의 보검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시며 공화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었다.

이렇듯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철석같은 믿음으로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것이 바로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불멸의 헌신을 수놓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도 헤쳐가는 혈연의 관계, 이 가를수 없는 혼연일체와 맞설 무기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서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북돋우시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천출위인이 계시고 일심단결의 최강의 무기가 있어 조선을 건드릴자 그 어디에도 없으며 2018년도에 공화국은 창조와 변혁, 승리의 자랑스러운 령사를 써나갈게 될것이다.

현 승 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이 땅의 새해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보다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되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새해에 들어와 첫 3일동안에 수백만kWh의 전력을 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는데 이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강철생산에 크게 이바지할 20t산소전로건설공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 때 2.8직동청년탄광에서도 상층작업자들이 기운차게 용을 쓸 때마다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고있다.

은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조국변역의 진군길을 힘차게

신심과 희망에 넘쳐

달려온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떨쳐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공화국은 류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다.

하지만 공화국은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물리치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나날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는 특출한 성과가 이

룩되었다. 공화국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고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자립적도태가 강화되고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새형의 트랙트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점령하고 농업부문에서 다수확농장

과 작업반대렬을 높이고 례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왔다.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벽한 투쟁속에 웅장화려한 려명거리가 일떠서고 과학문화전선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변혁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승리의 해 2017년을 긍지높이 추억하며 희망찬 새해의 진군길에 들어선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전진해가는 앞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확신이 더

욱 굳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를 올해에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로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양향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휘황히 밝혀져있다.

2018년에 공화국은 또 하나의 승리의 년표를 자랑스럽게 새겨갈것이다.

본사기자 흥 범 식

주체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끝없는 찬사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것은 뜻깊은 계기들에 여러 나라 정당 당수들과 인사들이 보내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끼르키즈 엘》 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조선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있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통해 자기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전세계에 과시하고있다.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계속되는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이 혼연일체는 그 누구도 허물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고 하면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은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그 누구도 주체조선의 앞길을 막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리치며 이룩하고있는 위대한 성과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격찬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일심단결로 굳건한 주체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의 려명을 반드시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승리의 장쾌한 축포를 기쁨속에 바라보는 각계층 군중들

평양의 청춘거리 체육촌에 있는 태권도전당에는 민족정통무도발전을 위하여 기울인 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로고와 심혈 그리고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에게 배우신 승고한 믿음과 사랑의 이사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2002년 5월 병약한 한 로인이 평양국제비행장에 내리였다. 불치의 병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을 힘겹게 가누는 로인은 태를 묻은 고국에 묻히리라는 소망을 품고 고국땅을 찾은 최홍희선생이었다.

그는 1918년 11월 함경북도 화대군의 궁벽한 산간벽지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서예에 눈이 뵈던 그는 시골생활에서 벗어나 신학문을 닦으려고 일본에서 대학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학업도중 그는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학도병》생활을 하게 되었고 반일학도병무장대를 맺고 거사를 준비한 탓에 검거되어 감옥생활도 하였다. 8.15와 함께 조국으로의 그의 귀향길은 인생의 키를 잘못 잡은 탓에 그해 10월 서울로 이어지였다. 남조선에서 《국군》에 들어간 그는 사단장으로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에 뛰어들어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내대었고 후에는 군단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잘못된 인생궤도를 놓고 통절히 회심을 하게 된것은 5.16군사쿠데라세력이 민족의 리익에 배치되게 일본파의 굴욕적인 《국교정상화회담》을 강행추진하고있던것을 목격하면서부터였다. 독재권력은 예비역장성들의 회담지시서명을 거부하는 그를 모해하고 암암리에 제거하려고 책동하였다. 생사운명의 갈림길에 놓인 그는 1972년에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대양건너 카나다로 이주하였다. 그는 이역땅에서 《카나다조국통일회》, 《배달민족회》 등을 맺고 신문 《배달신보》 발행인으로서 남

승고한 민족애와 동포애

태권도와 함께 영생하는 삶

조선독재 《정권》을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하였다.

1979년 5월 12일은 그에게 있어서 지나온 생을 구획짓고 새로운 인간으로 세상에 두번 다시 태어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그날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을 방문한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신것이다. 멀리 해외에서 조국을 찾아온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그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포옹하신 주석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동포애의 따뜻한 정이 차넘치는 자리에서 주석님께서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상봉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 같이 손잡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대단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군사독재 《정권》과 결별하고 해외에 나가 태권도로 민족의 일을 빛내이며 조국통일을 이바지하려는 애국심을 간직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벌려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계속하여 주석님께서서는 그에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해외의 민주인사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고수하고 리행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하시였다. 주석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은 최홍희선생에게 있어서 자자구구 인생의 라침판으로 되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조국을 방문한 최홍희선생을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애국과 매국이 뒤엉킨 그의 인생행

로에서 불미한점은 백지화시키고 곡절많은 인생의 마음속상처를 깨끗이 가시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부작에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최홍희선생을 원형으로 한 속편을 창작하도록 하시여 그의 인생이 예술화학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빛나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대해같은 믿음과 은총속에서 불우한 사나이로부터 복반은 행운아로 다시 태어난 최홍희선생은 오래동안의 정신적방황에서 벗어나 통일애국의 끝은 항로를 따라 인생의 노를 저어갈수 있었다.

1980년 9월 최홍희선생이 인솔한 태권도시범단은 조국에서 성황리에 시범출연을 하였다. 어느날 그를 만나시고 태권도시범출연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열렬한 절찬을 들려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선생이 총재로 있으면서 국제태권도련맹을 세계적인가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킨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담긴 태권도에 깃든 최홍희선생의 재능과 애국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민족의 재사로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그가 집필한 전 15권으로 된 《태권도 백과사전》을 조국에서 출판하도록 조치하시여 최홍희선

생이 평생소원을 풀도록 배려 해주시였다.

태권도에 대한 최홍희선생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우리 나라를 태권도모국으로 존엄떨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과 보살핌은 끝이 없었다.

주체79(1990)년 1월 한 일군을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홍희선생이 조국에서 태권도관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내비친데 대하여 상기 하시면서 아바트 한두체를 짓지 못하더라도 태권도관을 꼭 짓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후 태권도관을 세울 위치도 정해주시고 건물형성안도 일일이 지도하신 그이께서는 《태권도전당》이라던 현판 글까지 손수 써주시였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1992년 9월 태권도전당이 건설되었다. 태권도에 평생의 뜻을 품었던 최홍희선생은 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속에 자기의 념원을

성취하게 되었다. 당사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태권도를 대중화, 생활화하는 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시고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서 우리 나라에 정연한 태권도보급체계가 세워지고 학생소년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태권도운동이 활발해지고 태권도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에 세계의 5대륙과 많은 나라들에 널리 퍼급되어 세계적인 무도로 위력떨치게 되었다.

《태권도때문에 나의 인생은 싸워야 할 파란과 무릅써야 할 모험도 많았다.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살벌한 타향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기구한 운명에 있었지만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이 계시기에 영세속에 발자국을 남기려던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한 인간으로서 이 이상 흐뭇함과 즐거움을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 유감이다. 주석님과 장군님이 계시여 오

늘의 최홍희가 있고 태권도가 있는것이다.》

생전에 최홍희선생이 태권도인들에게 한 말이다.

그가 토로한것처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최홍희선생에게 베푸신 은총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최홍희선생이 배짱이 있고 립장이 있다고, 씨원씨원하고 한다면 하고 안한다면 안하는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인간됨을 높이 평가도 하고 그의 언젠가 그가 병상에 몸져누워있을 때에는 최선의 치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고 귀한 약재도 보내주시였다.

인간의 참모습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끼다고 하였다.

2002년 6월 운명을 앞두고 최홍희선생은 태권도련맹의 관계자들에게 마지막말을 남기였다. 자신이 다 받들지 못한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뜻을 태권도인들이 끝까지 실천해달라는 당부였다.

애국충신, 애국적무도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최홍희선생이다. 자기 인생에 한때 파란곡절은 많았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믿음과 은총속에 인생의 옳은 길을 걸으며 애국지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무도인으로 생의 흔적을 남기였다.

하기에 국제태권도련맹 부총재는 정통태권도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각각께서 최홍희선생과 국제태권도련맹에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민족정통무도발전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태권도전당이 보다 현대적으로 개건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제 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정통무도의 우수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리 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시마와 같이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다.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는 북과 남이 올해에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아줄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수 도 없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

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지난 기간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을 가지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은 여러차례에 걸치는 장령군군사회담들을 통하여 북남사이의 비방중상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일체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천에 구현하였으며 금강산 및 개성공업지구에서 벌어지는 경제협력과 교류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10.4선언에서도 북과 남은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남조선에서 극우보수세력이

집권한 때로부터 북과 남 사이에 대결이 격화되면서 신뢰분위가 사라지고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만이 고조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북과 남사이에는 침예한 군사적긴장이 조성되어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우기 지금 미국은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화해와 협력을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고 위협천만한 군사적도발에 매여달릴 기도를 로 끌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하에서 남조선당국은 지난 시기처럼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견어치워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공화국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다.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군사적긴장완화는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는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도 70여년, 우리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열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으며 외세의 침략책동으로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전쟁의 참화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

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반공화국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 발원지로 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미국은 우리 겨레의 평화지향에 도전하여 남조선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울지프 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 북침합동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불피코 열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다. 하기에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날을 따라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새해는 북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을 립벽경기대회가 열리

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수 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수 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또한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견어치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

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은 미국의 침략과 전쟁광기를 꺾고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보검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을 플라가며 치고 세계도처에 전쟁의 불구름을 식은죽먹듯 퍼붓을리곤 하는 미국이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주권국가인 수리아의 령토

에 수많은 미싸일들을 마구 퍼붓는 야만행위를 눈섭 하나 까딱 안하고 감행하였다.

미국이 반세기이상이나 제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온갖 제재와 위협의 대상으로 삼아온것이 공화국이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전횡과 침략전쟁책동을 막자면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막고 조선민족전체의 안전을 지키자고 하여도 우리 민족이 힘을 지녀야 한다. 그 힘이 바로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무력이다.

공화국은 지난해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함으로써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결코 공화국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공화국의 자위의 강위력한 핵무력은 앞으로도 공화국의 안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게 될것이다.

리 어 금

《북과 남이 대화하는것은 환영할 일이다》

— 남 조선 각 계의 반향 —

새해 2018년을 맞으며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해 천명한 원칙적이고 성의있는 립장들을 남조선 각계가 적극 환영해나서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대단히 환영할만 한 제안이고 《정부》도 상응하는 립장을 취해야 한다》, 《북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 련석회의 등 을 통해 새로운 교류와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올해에 통일운동단체들이 북남관계개선에 앞장설것을 다짐하였다.

《련합뉴스》, 《한겨

레》, 《통일뉴스》, 《자유시보》를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은 《2018년 신년사 명한 원칙적이고 성의있는 립장들을 남조선 각계가 적극 환영해나서고 있다》고 기대를 표시하였다.

남조선강원도의 지사는 《신년사의 내용과 표의 현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깜짝 놀랐다》, 《크게 환영한다》, 《북남단일팀을 구성할수 도 있다》고 하면서 적극 호응해나섰다.

남조선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의 과격적인 제안은 교착국면의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

어올릴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북의 제안이 평가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 정치권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숭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교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과격적이고 유화적인 조치를 담고있다고 하면서 올해에 북남관계개선에서 변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들에 는 《새해 반가운 소식이다》, 《평창겨울철올림픽이 남북평화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조선반도평

화의 첫걸음을기를 바랍니다》, 《북과 남이 대화하는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결이던 화해와 협력, 대화 그리고 민족공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한다》, 《북동도들과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형제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 《올해는 남북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대환영!》, 《평화 대찬성! 전쟁 싫어》, 《조선반도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 필요하다》, 《평화로운 조선반도! 자주통일! 사랑한다》 등 북남 화해와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글들이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일본의 과거범죄를 덮어두고 강박적인 미국

은 민족이 격분해하는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이른바 《합의》의 배후에는 다른아닌 미국이 서있었다. 그것이 얼마전에 다시금 드러났다. 미국은 침략적인 세계지배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일본, 남조선과 3각군사동맹 조작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려왔다. 그런데 남조선과 일본을 가깝게 해주는데서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있는것이 일본의 과거범죄이다. 만인이 분노하는 일본군성노예범죄문제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큰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의 좋지 못한 관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그것을 해소하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해왔다. 수년전 일본을 행각한 당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미일동맹강화를 떠들면서 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처한 3각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하여 력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2015년에는 일본, 남조선집권자들을 워싱턴에 불러들여 그들의 몸값을 높여주면서 력사인식

문제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타협》을 바라는 이들의 립장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강박하였다. 미국은 과거 아시아나 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인정과 사죄반성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일본의 처사를 비호두둔해주는 한편 친미친일굴종적인 남조선의 이전 박근혜 《정권》에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빨리 덮어버리며 일본과의 협상의 길에 나서라고 뻔질나게 강박하였다. 박근혜가 미국을 행각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력사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일본관계의 회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였다. 미국의 계속되는 압력으로 중지된 박근혜는 남조선 각계의 드높은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새로운 력사》, 《신뢰와 우의를 쌓기 위한 노력》을 떠들어대며 일본에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수년전 박근혜의 미국행각이 끝난지 며칠 안되어 일본남조선 《수뇌회담》이 열리고 년말까

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합의》하기로 한것은 결국 미국의 창안품이었던것이다. 미국의 끈질긴 간섭과 부추김에 의해 2015년 12월 28일 남조선과 일본과의 외교장관회담이라는데서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빈껍데기사죄와 녹거리자금지출을 골자로 하는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남조선의 한 언론이 《합의후 가장 기뻐하는 나라는 미국이다.》고 폭로하고 어느 한 외신이 《합의는 미국의 압력속에 만들어진 정치적선택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평한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이 《모든 당사국들이 이 민감한 사안에 치유, 화해,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함께 노력하고 접근하기를 권고한다.》, 《미국은 강력한 《한》 일관성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굴욕적인 《합의》에 뻔친 미국의 검은 손길을 더욱 드러내보여줄 뿐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치욕스러운 《합의》의 리면이 드러났다

최근 남조선에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발표로 박근혜보수패당이 집권기간 미일상전들과 공모하여 조작해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추악한 내막이 드러나 각계층의 분노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보고서에 밝혀진데 의하면 굴욕적인 《12.28합의》가 발표되기 전까지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량측의 외교부 국장급협의는 형식상에 불과하였으며 사실상 박근혜의 직접적인 주도 하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리병기가 남조선총대표로 참가하여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는 《12.28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합의》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외교부에게 국제무대에서 일본군성노예관련발언을 하지 말라는 황당한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일본군성노예관련단

체 대한 설득》, 《제3국의 기립비지원중단》, 《성노예표현의 사용금지》 등 일본과 굴욕적인 리면합의를 이룬 흑막도 밝혀졌다. 이밖에 성노예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관련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량측이 사전에 답변을 조를한 문제, 일본의 성노예지원금을 약 858만US\$로 정할 때 피해자들의 의견을 받지 않은 문제 등이 폭로되었다. 그리고 남조선과 일본 사이에 끝을 맺지 못했던 일본군성노예문제에 《합의》를 보게 된것이 다른아닌 미국의 끈질긴 간섭과 부추김에 의한것이였다는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사실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야말로 박근혜보수 《정권》이 미국의 압력과 간혹한 일본에 굴복하여 조작해낸 일대 사기물이며 박근혜보수패당은 민족의 피와 얼이라고는 꼬불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천하역적의 무리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

증해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사기와 협잡으로 우린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일본의 죄악을 무마시킨 박근혜보수 세력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항의로 들끓고있으며 매국적인 《합의》의 전면폐기를 요구해나서고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정당들은 이를 《가장 치욕적인 외교참사》라고 략인하면서 전면파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해나서고있다. 지금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나비네트웍》 등 각계층 단체들은 《박근혜범죄자가 저지른 사대매국적인 행태가 날날이 드러난다.》, 《초불의 명령이다. 매국적위안부합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하면서 《합의》의 전면무효와 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못한다.》,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량국관계는 관리불능이 될것이다.》고 오히려 제편에서 큰소리치며 남조선당국에게 압을 가하고있다. 박근혜패당과 작당하여 뒤꼁방에서 협잡문서를 조작하고도 그 내막이 탄로나자 사죄는커녕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날뛰는 일본당국이야말로 인륜도 법도도 모르는 파렴치하고 사악한 족속들이며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임이 틀림없다. 이번엔 드러난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는 박근혜보수세력이 집권기간에 저지른 매국반역범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것과 함께 역도가 추진한 매국반역정책들의 무효화와 전면철폐를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여나가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본사기자 리 철 민



《밀실야합, 리면합의! 12.28한일합의 즉시 폐기하라!》

남조선 평화단체 대전에서 투쟁 전개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나비대전행동》이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에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를 즉시 폐기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지난 27일 공개된 성노예문제 《합의》 검토결과보고서를 통해 2015년 12월 28일 성노예문제 《합의》를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밀실야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것이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2년전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가 발표될 때 각계가 강도적 《합의》와 다른없는 매국협상이라고 분노를 터쳤다고 말하였다. 이번엔 《합의》 검토결과보고서를 통해 그 굴욕적인 《합의》과정의 전면모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그들은 《정부》가 매국문서인 합의문을 전면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합의》 폐기와 동시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초래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이 랑독되었다. 회견문은 비공개 《합의》에는 《정부》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해결》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위해 노력하며 성노예라는 표현의 사용을 반대할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것은 《합의》가 이루어지기까

지의 과정에 군사동맹강화를 위한 미국의 관여와 압박이 있었다는것이라고 회견문은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현 《정부》가 일본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의》를 전면무효화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하며 일본이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한 10억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통합반대파가 이룬 결정적합의가 계파싸움

남조선의 《국민의 당》내부에서 새해정초부터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찬성과파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지난해말 《국민의 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한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의 당》의 당원 20%가 조금 넘는 성원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전당원투표는 저조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국민의 당》 당원 대부분이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대표측은 전당원투표에서 통합찬성파가 승리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열을 올리고 통합반대파가 이를 거부하면서 새해벽두부터 《국민의 당》의 계파싸움이 본격화되고있는것이다.

지금 통합찬성과파인 안철수계는 당규해석 등에 근거해 전당대회 성공적개최를 자신하고있지만 반대파인 호남계는 현 전당대회의 의장이 통합반대파인것을 리용하여 통합을 결사반대해나서고 있다. 찬성과파의 한 의원이 2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전당대회개최는 당무위원회 결정사항이고 전당대회 의장은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뿐》이라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부의장이나 대행에게 전당대회개최를 시키면 되는것으로 당규약을 해석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통합반대파인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개최를 거부하더라도 중립파인 정책위원회 의장 등 부의장에게 전당대회개최를 시키거나 찬성과파의원을 대행으로 임명해 전당대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안철수의 최측근인물은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반대파가 통합을 실현할 경우 대항해 전당대회에선 현장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있다.》고 했다.

한편 통합반대측은 통합을 반대하는 전당대회 의장은 물론 중립파인 정책위원장 등도 끌어당겨 전당대회개최만을 반드시 지지시키려 하고있다. 지금 통합반대측은 1월말 전당대회개최를 추진하는 안철수계의 계획을 한차례만 지연시킬수 있다면 그 시간동안 대표당원 1만여명중 3분의 1이상의 수표를 받아 전당대회자체를 백지화시킬 확률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준비사업을 해나가고있다. 이런 속에 《국민의 당》에서 박지원을 비롯한 통합반대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박정희의 망령을 되살리는 보수대야합, 적폐통합이라고 하면서 격렬히 반대해나서고있다. 특히 통합찬성과파원들의 일부 보좌진들은 보수와 손을 잡으려는 의원들을 더는 좌할수 없다고 하면서 줄줄이 사표를 내고 전라도 지역의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은 빠른 시일안으로 탈당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등 당내부가 소란하다. 이처럼 《국민의 당》은 지금 통합찬성과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가 진행된 이후 본격적인 통합추진에 나서고있는 반면에 통합반대파들은 안철수사퇴와 통합중단을 요구하면서 당내갈등과 분당위기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무엇을 노린 방위비증대인가

일본정부가 올해예산안에 사상최대의 방위비를 편성하고 군사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일본의 어느 한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올해 방위비를 지난해에 비해 1.3% 더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6년째 방위비가 계속 상승하고있다. 이러한 늘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생역지를 부리고있다. 일본이 방위비증대를 통해 실제로 노리는것은 군

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이다.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고 평화헌법도 뜯어고치려고 하는 아베정권하에서 방위비가 해마다 대폭 증대되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방위성은 2018년부터 《JADGE》(탄도로켓의 계도 및 락하지점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자동경계관리체계)의 성능개량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까지 완료하며 이

것을 위해 1억US\$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아니라 해상배치형 신형요격미사일 《SM-3 블록2A》를 2021년부터 실전배치하고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종합체 《이지스 어서》의 배비를 2021년까지 완료하려 하고있다. 2020년까지 이지스구축함 4척을 추가도입하여 조선동해에서 활동하는 이지스구축함의 수를 현재의 4척에서 8척으로 늘이려고 하고있다. 지상에 배치되어있는 17개의 《패트리오트》 운용부대도 28개로 증강하기로 하였다. 전투기에 탑재하여 지상표적뿐아니라 해상의 함정들도 공격할수 있는 미국산 공중대상 및 공중대해상 장거리순항미사일 《JASSM-ER》(사거리 300여km)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도예산안에

반영해놓은것을 비롯하여 지금 일본의 군사적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일본정부는 독자적으로 지상공격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개발하여 《적》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을 갖추겠다고 떠벌이면서 일본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개발에도 착수하였다고 한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고 방위비를 해마다 늘이며 무기공동개발 및 수출을 추진하고있는 일본의 무분별한 움직임에 아시아의 주변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가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련 옥



인공조명의 역사는 인류가 불을 발견한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부시돌로 불을 일구어 밤을 밝혔다. 당시의 조명은 단순한 빛으로 어떤 물체를 비추어보는데 불과하였다.

인공광원으로 처음에 쓰인 것은 우등불, 횡불 등이었으며 19세기말까지는 여러가지 물질(광술, 기름, 양초, 석유 등)을 태울 때 나오는 빛을 광원으로 리용하였다. 이후 인류는 에디슨의 발명으로 백열등을 리용하게 된다.

21세기 인류의 광원은 레드등이라고 할 수 있다.

레드등은 전압을 가했을 때 빛을 내는 반도체소자를 리용한 조명기구다.

레드등은 콤팩트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빛효율이 2배 이상이

인민들에게 더 밝은 불빛을 안겨주시려고 —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을 찾아서 —

며 사용수명도 10배이상에 달할뿐 아니라 전압, 주파수파동에 따라 빛색이 변하지 않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공화국에서도 높은 품질을 담보하는 각종 형태의 레드등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은 공화국에서 레드등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한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의 레드등생선은 인민생활향상에 언제나 마음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99(2010)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공장 기술자들에게 몸소 레드등을 내려보내주시면서 레드등생선의 방향을 가르쳐주시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밝은 불빛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갈 일념밑에 이 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레드등생선공정에 대한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작성과 생산공법 확립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기술방조를 주겠다고 막대한 자금을 요구한 외국의 한 회사

에서는 자기들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것을 자체로 하자면 6년이 지나도 못한다고 하였지만 공장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단 6개월만에 우리 식의 질 좋은 레드등들을 내놓았다.

몇해전 이 공장을 찾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오늘 공장에 오니 하루빨리 레드등생선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레드등을 보여주시면서 장군님

의 크나큰 은정과 세심한 지도 속에 공장이 짧은 기간에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레드등생선공정을 새롭게 꾸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레드등생선은 이 공장에서 첫시작을 댄셈이라고 만족해하시였으며 질 좋은 레드등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오늘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강력한 기술력량과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 각종 레드등을 생산하는 룝색에네르기제물생선기지로

자랑떨치고 있다. 제품제작으로부터 조립완성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이고 지능화된 설비들로 꾸려진 생산공정들에서는 각종 레드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각종 레드등들은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와 려명거리의 살림집들, 평양화장품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학교, 주택, 거리 등의 조명으로 리용되고 있다.

오늘 삼천리조명기구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더 밝은 불빛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깊이 전해갈 일념밑에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려나가고 있다.

글 : 본사기자 김춘경
사진 : 본사기자 동창현

품질이 뛰어난 것까지 레드제품들

삼천리조명기구 공장의 제품전시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제품전시장이라기보다 하나의 예술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각종 레드등들이 조형예술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조명에서 세계패권을》, 《자강력제일주의》, 《최첨단돌파》라는 구호가 한눈에 안겨오는 제품전시장은 자기 힘을 믿고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이 공장 종업원들의 정진세계를 말해주고 있다.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레드등은 백열등이나 콤팩트등에 비해 수명이 오래고 교류전압 80~260V에서 밝기변화가 없으며 유해물질이 없는것으로 하여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을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없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레드등은 자외선 복사나 열 등으로 방안에 놓은 가구들의 탈색이 거의 없다.

이곳 제품전시장에는 실내조명에 쓰이는 갖가지 종류의 레드등들도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실내조명레드등들과 벽장식 레드등,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동물들을 형상한 유화등, 여성들을 위한 거울등들이 아름다운 색과 모양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옆에는 특색있는 형식과 모양의 기능성레드등들도 전시되어 있다. 건물외벽에 불장식을 할수 있게 갖가지 령통한 색깔의 빛을 내는 레드등이 있는가 하면 건물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레드등들도 있다.

먼다운동, 바닥등, 장식꽃등, 탁상등, 투광등을 비롯하여 전시된 레드등들의 종류와 형태는 손에 꼽기 힘들정도이다.

전시장에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각종 발광2극소자와 직류12V용레드등도 전시되어 있는데 품질이 뛰어나 호평을 받고 있다.

실로 삼천리조명기구공장의 제품전시장은 최첨단을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조명산업발전면모를 한눈에 알수 있게 하는 속도वाद 같다.

첨단을 돌파하여 세계를 앞서나가겠다 — 박성룡 삼천리조명기구공장 지배인과의 대담 —

기자: 공장을 돌아보니 일군들부터 시작하여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이 하루빨리 조명산업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려는 열의가 대단히 높은것이 알린다.

박성룡: 우리 공장은 일군들부터 전문지식을 가진 한다하는 기술자들이고. 그뿐 아니라 경제실무사업을 하면서도 부단히 새기술습득을 하고있으며 해마다 한가지이상의 창의고안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때문에 지배인이나 부러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첨단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몇해전에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사장도 30대의 전도유망한 학위소유자이다. 일군들부터가 기술에 밝고 실무가 높으니 기술자들과 종업원들도 그에 따라서기 위해 스스로 분발하고 있다.

기자: 공장에 설치된 태양빛을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태양빛전지판들이 불만 하던데 공장에서도 자체로 개발한것인가?
박성룡: 그렇다. 우리 공장 기술자들이 개발도입한 병렬형태양빛추종발전소이다.

이 발전소는 생산한 전기를 국가전력계통에 넣고 필요한 시간에 받아쓰는 발전소이다.

우리는 태양빛전지판의 추종장치와 요소들의 설계를 최량화함으로써 고정식에 비해 발전량을 근 2배로 높였으며 동시에 자체에네르기소비량을 수입산에 비해 30%정도 줄무사업을 하면서도 부단히 새기술습득을 하고있으며 해마다 한가지이상의 창의고안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십kW능력의 병렬형태양빛추종발전소에 대한 시험운전을 진행해본 결과 독립형발전소보다 초기투자는 1/2정도, 운영비용은 1/20정도로 줄일수 있다는것이 확증되었다. 많은 단위들에서 우리의 경험을 배우러 찾아오고 있다.

기자: 공장에서 새 제품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박성룡: 우리 공장에 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것은 새기술을 적극 도입한것과 함께 경영전략을 잘 짜고하는데 있지 않는가.
박성룡: 우리 공장에서 제품개발과 생산, 판매를 일체화하고 있다.

들을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일군들과 생산자들 누구나 새기술창안사업에 떨쳐나서고있으며 그중 우수한 착상은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매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자: 최근에는 어떤 새 제품을 개발하였는가?

박성룡: 지난해 우리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전시품들의 변탈색현상을 줄이는 새로운 레드등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갈 만만한 배심을 안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밝기가 센 랑백색레드등이 일반레드등보다 변탈색현상을 심하게 일으키며 변탈색현상을 일으키는 기본인자인 푸른색빛량이 레드등 변화된다것을 조사확증하였다.

기자: 이 공장 제품들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것은 새기술을 적극 도입한것과 함께 경영전략을 잘 짜고하는데 있지 않는가.

박성룡: 우리 공장에서 제품개발과 생산, 판매를 일체화하고 있다.



화된 기술봉사를 해주어 구매자들의 레드등구입과 설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각종 레드등은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진행되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들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는 새해에도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품질이 좋은 레드등을 더 많이 생산해나가겠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질 좋은 레드등개발과 생산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생동하면서도 조형예술성이 높은 얼음의 세계

◆ 평양얼음조각축전 - 2018 진행 ◆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얼음조각축전-2018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축전은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전시형식도 특색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저녁에는 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거리의 가로수들이 불장식으로 아름다운 《서리꽃》 야경을 펼쳐놓고 광장에 전시된 얼음조각들이 색조명으로 황홀한 모습을 한껏 드러내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얼음축전에는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하여 조선인민군창작사, 평양시안의 여러 구역들과 교육기

관 그리고 조각애호가들이 창작한 많은 얼음조각들이 전시되었다.

축전장에는 백두밀림속에 웅건장중하게 솟아있는 정일봉과 떠오르는 아침해를 형상한 얼음조각, 백두산의 해돋이를 형상한 얼음조각이 전시되었다. 특히 백두산의 해돋이를 형상한 얼음조각은 천지호반과 태양, 밀림에 대한 색조명을 보장하여 그 예술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축전에는 투명하게 맑은 얼음으로 소나무와 참매를 형상한 《아침의 나라》도 전시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회주의강국의 강용한

기상을 누리에 떨치며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의 70층살림집을 비롯한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형성한 얼음조각들은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르는 대륙간탄도로켓들을 형상한 얼음조각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온 격동의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만리마시대에 태어난 새형의 트랙트르, 화물차

동차들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생산한 명제품, 명상품들을 형상한 얼음조각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갈 공화국인민들의 의지를 잘 반영하였다.

얼음조각축전에는 유치원어린이가 내놓은 사과바구니얼음조각도 전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칠색령롱한 갖가지 색깔의 불장식과 어울려 신비한 얼음의 세계를 펼친 축전장은 새해를 맞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설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었다.

본사기자



겨울철 건강유지를 위한 몇가지 방법

겨울철에는 흐린 날씨가 사람들의 기분상태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심달린다. 해빛은 인체에서 기쁨관련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비타민D를 생성하며 생체활동을 정상화하고 잠의 질을 개선한다.

최근에 학자들은 해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심장병, 종양질환과 같은 병을 초래된다는것을 밝혀냈다.

겨울철 건강을 유지하자면

첫째로, 아침식사를 옳바로 해야 한다. 음식을 통해 비타민D를 많이 섭취

하여야 한다. 비타민D는 특히 바다물고기의 간에 많이 들어있다. 닭알과 우유, 꿀, 굳은열매와 말린 과일도 먹으면 좋다.

둘째로, 하루종일 집안에 있을 때에는 창문을 깨끗이 닦아 해빛이 더 많이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산보를 하다가 바깥공기를 쏘일수 있다. 자외선의 절반이상이 구름층을 통과한다. 자외선의 작용에 의해 인체에서는 일산화질소가 생성된다. 일산화질소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확장시키며 혈압을 낮춘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여 을 물 소 리 (3)

글 현 명 수, 그림 박 봉 혁

《그때로부터 이태후 일본에서 사는 조선공민들은 사회주의조국으로의 귀국의 권리를 쟁취하였소. 난 선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명하였소. 이듬해 봄 우리는 귀국하기 위해 집을 싸기 시작하였소. 십여년만에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것이였지. 그런데 나의 장인은 남편부의 울산이 고향이였소. 장인은 울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지. 집사람은 무남독녀였소. 나는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것이요. 한동안 번민하던 나는 끝내 귀국선이 기다리는 니이가다항으로 가지 못했소. 결국 사랑과 의리를 지키자고 귀향길을 버린셈이지. ... 난 남조선에서 유전학연구사로서 일하면서 예측학자의 실상을 낱알이 체험하게 되

었소. 그리고 북에 고향을 둔 나를 당국측에서도 시답게 보지 않았소. 결국 늙어 닦을 내린 곳이 암스테르담에서의 이 민생활이였구려. 나는 이 조직배양연구를 종합하여 고향에 보내려고 이 나라 주체 조선대사관의 문화참사를 찾아갔었는데 그 젊은 문화참사가 글썽... 박인철이라는 그 젊은이는 알고보니 박석진의 아들이 아니겠소. 참 운명이란... 결국 오늘 선생에게 이르러서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

그리하여 윤결은 유진의 연구자료를 가지고 조국으로 떠났고 유진은 그의 귀국을 초조히 기다리고있는것이이다.

이제 나흘후에 윤결은 네델란드에 도착할것이다.

유진이 려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매가 부드러운 접수구의 처녀가 반기며 손을 내미는것이였다. 《부락하신 비행기표입니다.》

려객기는 암스테르담비행장에 정시 착륙하였다. 여러날동안 상쾌한 수림속에서 휴식을 하고 돌아오는 유진은 몸도 여느때없이 튼튼해보였고 기분도 좋았다. 비행기에서 내려서는 그를 숙향이 맞이하였다. 50년세월 회로애락을 함께 나뉘은 귀중한 벗이였다. 젊어서는 련인이였고 로쇠한 지금에 와서는 능숙한 간호부이기도 하였다. 유진과 마찬가지로 머리가 하얗게 센 숙향은 지팡이를 짚으며 비교적 활달하게 걸어도 그를 보며 안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느때나 늙은 자기 남편을 꼭 강변에 놓고 온 아이

같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였것이다.

더우기 요즘에 와서는 남편의 심장병이 도지는 것 같아 잠시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의 수림속 산책이 아마도 남편의 건강에 확실히 좋은것 같다. 얼굴색이며 걸음걸이, 팔을 휘젓는 품을 보아도



떠날 때보다는 아주 건강해보이니 말이다. 그들은 나란히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마치 오랜간만에 만난 젊은 련인런듯 서로 팔을 끼고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

공화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에는 록두지짐가공법도 있다.

록두지짐은 록두를 물망질하여 기름에 등글넙적하게 지져낸 민족음식이다.

록두는 세나라시기 이전부터 재배되었고 록두지짐의 가공방법도 비교적 단순하다. 옛 기록에 의하면 17세기 말엽의 록두지짐은 되직하게 간 록두지짐감을 번철에 조금 떠

놓은 우에 삶은 밤과 꿀을 버무려놓고 다시 지짐감을 섞워 지진 다음 그우에 잣과 대추를 박은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결혼식이나 생일과 같은 의례때의 큰상은 물론 제상에도 록두지짐을 놓는것이 풍습으로 되어오고있는데 평상시에도 특식으로 지저먹고있다.

록두에는 단백질, 기름, 탄수화물, 광물질, 비라민 등 사람의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영양가가 높을뿐

아니라 체내에 흡수된 독물질에 대한 독풀이작용도 한다.

록두지짐은 지방에 따라 특색있게 만든다. 평양에서 록두지짐을 지지는 방법을 보면 우선 록두를 물에 불구었다가 겹질을 벗기고 물망질을 한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록두지짐가공법

다. 한편 배추김치는 물에 한번 행구어 가늘게 썰고 빨간 고추는 다지고 파는 엷썰다.

돼지고기는 비계가 붙은것으로 삶아 일부는 가



옛날 어느 한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고있었다. 가산을 탕진하며 놀기만 하다가 빌어먹게 된 그는 어느날 거리에 나갔다가 닭알 한개를 주어왔다. 희색이 만연하여 집에 돌아온 그는 안해에게 《이젠 나에게 재산이 생겼소.》 하고 말하였다.

안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자 그는 닭알을 꺼내보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거요. 이제 10년만 있으면 이것이 큰 재산으로 될거요. 나는 이것을 이웃집 담장에 가져다가 병아리를 깨우겠소. 그 집 병아리들중에서 암놈을 가져다가 키워 알을 낳게 되면 못해도 한달에 15알은 낳겠지? 그것을 키워면 다음해에 그것들이 또 알을 낳을게거든. 이렇게 한해가 지나면 닭알이 300마리의 닭으로 칠게거든. 그것을 내다팔면 금 열냥은 받을수 있소. 금 열냥이면 암소 5마리는 살수 있지. 암소가 새

끼를 낳으면 3년후에 우리

는 소 25마리를 가지게 되

오 그것들이 또 새끼를 낳

게 될거란 말이요.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소가 150마리는 될거요. 소 150마리는 금 300냥이요. 300냥의 금으로 번놓이를 하면 리자가 생겨 500냥이 될게 아니겠소. 그 돈으로 밭과 집을

다 맡아먹었소이다. 나으리, 이년에게 증좌를 내려 주십시오.》

《그가 너의 어떤 가산을 맡아먹었던 말이냐?》 게으름뱅이는 자기가 길거리에서 닭알 한개를 주었던 일부터 시작하여 첩을 데려올 생각을 한데까지 일일이 다 말하였다.

고을원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그처럼 큰 가산을 맡아 먹다니... 참으로 증좌를 받아 마땅하도다.》

그러자 녀인이 통곡을 하면서 《남편이 말한것들은 아직 현실로 변하지

않은것이온데 어이하야 나에게 증좌를 지우려 하시나이까?》 하고 발명을 하였다.

그러자 원이 넋지시 말하였다. 《네 남편이 첩을 데려왔다고 한것도 아직 현실로 되지 않았는데 너는 어찌 질투부터 하

는거냐?》 녀인은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말도 못하였다.

이 앉아있는 장난꾸러기 소년은 유진의 어릴적 모습이었다. 60여년전의 어느날 마을의 대사정에 촬영하러 왔던 습거리의 마을후한 사진사가 우연히 찍게 된것이였는데 사진이 잘되였다면서 절반값만을 받고 나누어준것이였다. 이제는 무척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퇴색이 되고 구김살이 가고 귀퉁이가 험이 나들나들 해졌건만 유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고향의 유물이였다. 언젠가 다심한 숙향이 그 옛 사진을 콤팩트카로 복사하여 새것처럼 재생하여왔었는데 로인에게는 사진뿐만 아니라 그속의 수성천의 여물물이며 자기의 어릴적 초상마저도 생소하게 느껴져 다시 낡은 사진을 내걸게 하였던것이였다. 지금도 유진은 이 사진을 보면서 고향 수성천의 여물물소리와 《유진아!》 하고 찾던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일김, 체취, 저녁밥을 짓는 산골특유의 내굴냄새까지도 생생히 되새기게 되는것이였다.